

## 새로 부름 받은 세 명의 칠십인 회장단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세 명이 2007년 8월 15일자로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 받았다. 켄틴 엘 쿡 장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찰스 디디 에이 장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로버트 시 옥스 장로의 후임으로 부름을 받았다.

### 켄틴 엘 쿡 장로



켄틴 엘 쿡 장로는 1998년 4월 4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96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북미 동남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쿡 장로는 선교사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북미 서북 지역과 태평양 군도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 및 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기도 했다.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쿡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서터 헬스 시스템의 부회장이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건강관리 시스템의 회장, 최고 경영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그 전에는 카, 맥클리언, 잉거졸, 탐슨 앤 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법률 회사의 경영 파트너였다.

쿡 장로는 영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지역 칠십인으로도 봉사했다.

1940년 9월 8일 미국 유타주 로건에서 태어난 켄틴 라마 쿡은 1962년 11월에 매리 개디와 결혼하여 세 자녀와 아홉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2001년 3월 31일에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94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아이다호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그는 남미 북 지역과 브라질 북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브라질과 남미 남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젊은 시절 상파울루에서 마케팅을 공부했으며, 훗날 교회 교육 기구의 여러 직책에서 13년간 봉사했고,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그는 상파울루에서 종교 교육원 원장이었다.

코스타 장로는 교회에서 종교 교육원 및 세미나 리 교사,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보좌, 선교부 회장 및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1949년 3월 25일 브라질 산토스에서 태어난 클라우디오 로베르토 멘데스 코스타는 1978년에 마가렛 페르난데스 몰가도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고 한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손녀를 두고 있다.

###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2001년 3월 31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북미 중부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스노우 장로는 신권부의 집행 책임자, 아프리카 동남 지역 회장 및 같은 지역의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스노우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 스노우 장로는 스노우 너퍼라는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으며, 자신의 지역 학교 위원회 회원 및 회장, 유타 주 교육 평의회 회장, 서부 주 고등 교육 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후원했다.

스노우 장로는 독일 북 선교부에서 전

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스티븐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1949년 11월 23일, 미국 유

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6월에 필리스 스 콰이어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네 명의 아들과 여섯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

## 페루와 파라과이의 영부인들, 인도주의 노력을 직접 보다

**솔** 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4월 동안, 페루와 파라과이의 영부인들이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보았다.

페루의 영부인 피랄 노레즈 데 가르샤 여사와 파라과이의 영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오 데 두아르테 여사는 자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 펼치고 있는 자구적 노력

을 교회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복지 광장 및 인도주의 센터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다.

페루의 영부인은 교회 지도자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전 교직원들 및 학생들에게 그녀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인 켐브란도(Sembrando)를 소개했다. 켐브란도는 페루의 고산 지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르샤 여사는 유타에 있는 동안, 교회가 페루에 1,000개의 휠체어와 45톤의 아트밋(영양실조와 기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조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페루의 영부인인 피랄 노레즈 데 가르샤(컴퓨터 앞 여사와 그녀의 딸, 조세피나 가르샤 노레즈(영부인의 왼쪽)가 교회의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그들의 조상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파라과이의 영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오 데 두아르테 여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를 만나고 있다.

되었다.

두아르테 여사와 파라과이의 대표들은 48개의 위생용품 세트를 직접 만들었다. 이 세트들은 재해 지역으로 보내지며, 치솔, 치약, 비누와 행주 등의 물품들이 담겨 있다. 파라과이에 있는 두아르테 여사의 재단인 REPADEH (인간 개발을 위한 파라과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조 및 구제 활동을 교회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협정도 체결되었다. 이 재단은 작년에 이미 교회와 협력하여 2,000여 개의 휠체어를 제공했다. ■

## 교회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의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조명하다

보니 보이드, 교회 잡지

**18**42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가 창립되었을 때, 에머 스미스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Relief Society Minutebook[상호부조회의 사록] 1842년 3월~1844년 3월, 1842년 3월 17일자 기록, 12쪽,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갓 피어난 조직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서 아주 특별한 ‘여성의 은사 선집’이라 이름붙인 새로운 전시물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전시회는 전 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

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에머가 한 놀라운 선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린다.

전시회에 포함된 것 중, 역사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 중 하나는 상호부조회의 설립자들이 각 모임의 진행을 기록한 1842년 의사록이다.

*A Record of the Organization and Proceedings of the Female Relief Society of Nauvoo*(조직의 기록 및 나부여성 상호부조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이 원고에는 1842년부터 1844년까지 나부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의 의사록이 들어 있다. 의사록에 담겨 있는 여러 인용구들은 전 세계의 회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이 의사록은 후기 성도 여성



퀼트는 교회 선교사들을 따라 본래 퀼트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지역들, 예를 들면 타히티와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퀼트를 만든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퀼트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어머니는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배웠다. 이 퀼트의 디자인은 과일과 식용 씨앗을 만들어내는 타히티산 나무, 헤이파라(Heifara)의 무늬인데 이것은 판다누스(역자주: 손바닥처럼 생긴 열대 식물)를 의미한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나부의 첫 번째 여성 상호부조회 서기로, 의사록의 상당 부분을 직접 기록했다. 그녀는 이 소중한 문서를 가지고 1847년 대륙을 횡단했으며, 1868년에 시작된, 유타와 주변 지역에서 와드 상호 부조회를 재설립하는 감독들을 돕는데 활용하였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두 번째 회장으로써, 그녀는 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 설립에서 여성들을 감독했다.



200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앤 핑그리 자매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알게 된 여성들이 추천서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이 자신의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이 성도들의 땅에 성전이 헌납되었다.





1876년 브리검 영은 에블린 웰스에게 밀 저장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여성들은 밀을 모았으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기금으로 밀과 밭을 구입했다. 수년 동안, 그들의 밀과 밀 기금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유럽인의 구호를 비롯한 여러 자애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밀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 모토를 상징하게 되었다.



상호부조회가 창립되고 난지 얼마 후, 여성들은 나무의 관할 구역 또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기 위해 보내졌다. 오늘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방문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책임은 계속해서 친자매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다.

### 상호부조회 의사록에서 인용한 글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도 해야 한다.”(조셉 스미스,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6월 9일)

“이 시대에 유행하는 풍습이 우리를 인도해서는 안됩니다. 시온의 딸로서 우리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엘리자 알 스노우,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 17일)

“[저는]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주실 재능들과 축복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5월

27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핍박 받은 자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사라 클리브랜드,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2년 3월 17일)

“[저는] 우리가 왕국의 것들에 대해서로 이야기하고 이 눈물의 휘장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기쁩니다.”(엘리자베스 엔 휘트니, Relief Society Minutebook, 1843년 7월 15일)

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서가 되고 있다.

상호부조회의 선행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여러 역사적, 현대적 미술품, 글, 일상의 소재들이 포함된 6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후기 성도 여성들은 수많은 활동과 행사들에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행사들의 결과는 자매애와 봉사라는 놀라운 유산들을 만들어왔고 또한 만들어 가고 있다.

“160여년 전에 상호부조회가 창립된 이래로, 전 세계의 후기 성도 여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동정심과 봉사 활동들을 수행해 왔습니다.”라고 전시관 관장인 마조리 콘더는 말한다. “이 봉사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에 자매애라는 유산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시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

이자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에머 스미스의 그림 인쇄물, 음악, 퀼트, 요리 책 및 전 세계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든 작품 등이 주류를 이룬다.

소장품 중에는 음악가로 성공한 교회 회원 글레디스 나이트가 수상한 그래미 상도 있다. 나이트 자매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재능들을 발전시키는데 그녀의 훌륭한 재능들을 사용해 왔다.

박물관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www.lds.org/churchhistory/museum](http://www.lds.org/churchhistory/museum)를 방문하도록 한다. ■



배스쉬버 스미스의 물문경 한 페이지는 접혀진 상태로 남아 있다. 하이럼 스미스를 기리는 뜻으로 보인다.

## 교회, 조지 에이 스미스와 배스쉬버 스미스의 유품을 받다

존 엘 하트, Church News

**테** 이블에 펼쳐진 조지 에이 스미스와 배스쉬버 윌슨(비글러) 스미스의 소유물들은 교회 역사의 한 세기를 엮는다.

근시였던 그의 여러 안경 소장품에서부터 초기 교회에 대한 시각적 역사 자료가 되는 사진에 이르는 이 유품들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부들 중 한 쌍의 인간애를 보여준다.

물문경, 여성용 머리 장식,페이즐리 직물로 짠 숄, 손수 만든 것발, 여러 사진첩, 편지, 성지 여행의 스크랩북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관장인 리차드 오만이 받은 몇 개의 상자에 들어 있는 것들 중 일부이다.

조지 에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침례 받았던 1832년부터 1875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사촌이자 열정적인 개종자로서, 그는 “저는 항상 조셉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적들은 저의 적들입니다.”라고 말했다.(Preston Nibley, “Youngest Modern Apostle,” *Church News*, 1950~1951

년, 주간 연재물에 실렸던 조지 에이 스미스의 생애) 1834년, 그는 시온 진영과 함께 여행했으며, 1838년,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미주리 주에서 쫓겨났다. 1840년에는 너무 아파서 거의 걸을



조지 에이 스미스



배스쉬버 스미스

수 없을 정도였지만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훗날 유명한 개척자가 되었으며 유타 주 세인트조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는 또한 교회의 역사가와 제일회장단 제1보좌가 되었다.

그의 아내인 배스쉬버 ('배스-쉬-버'라고 발음함)는 본부 상호부조회의 네 번째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Woman's Exponent*(여성의 대변자)의 출판을 육성했으며 여성의 선거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녀가 꼼꼼하게 보존한 개척자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과 지역의 축하 행사에서 모은 구겨진 빨간색, 흰색, 파란색 리본이 담긴 상자들은 그녀가 그 당시 열렸던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가족을 사랑했음을 말해준다.

기록 보관자인 크리스티 베스트에 의하면 그녀는 다섯 세대에 걸쳐 기록을 보

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한다. “저는 배스쉬버를 가족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 면에서, 즉 교회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 면에서 바라봅니다.”

배스쉬버의 물문경은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 직전에 읽었던 바로 그 책으로, 교리와 성약 135편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더서의 한쪽 모퉁이가 아직까지도 접혀 있다. 스미스 장로는 그 물문경을 출판한 영국에서 이 책을 구입하였다. 또한 이 책에는 배스쉬버의 결혼 전 성이 적혀 있다. 그는 선교사 초창기인 1837년에 배스쉬버를 만났고 그녀의 집에 묵었다. 그는 그녀가 열다섯 살, 침례 받을 당시 그곳에 있었으며 20세에 “...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보존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3년 안에 결혼하자고 잠정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그곳에서 야유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 두 시간 반 동안 설교하기도 했다. (“Youngest Modern Apostle,” *Church News*, 1950~1951년)

그로부터 3년 후, 전능하신 분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보존해 주셨지만 그들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 편에 살게 되었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갖추려 받은 사도는 이렇게 적었다. “배스쉬버 자매에게 그녀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 주세요. ... 그녀가 만약 결혼했거든, 저 대신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녀가 아직 독신이라면, 저와 함께 행복하도록 빌어주세요.”

그는 1841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부모님을 만나 빈 후, 곧장 비글러 씨 집으로 향했다. 그와 배스쉬버는 열흘 후인 7월 25일에 결혼했다.

1844년, 그는 미시간에서 복음을 전

파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유품들 중 작은 팸플릿은 그때, 그곳에서 썼던 것으로 조셉 스미스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고자 도모하는 내용이며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공약으로 걸고 있다. 순교 소식을 접한 스미스 장로는 서둘러 귀향했다. 그는 윌라드 리차즈와 뜻을 같이 하여 카테지 사람들에게 복수를 꾀하는 일을 반대했다.

카테지에서의 고통과 뒤이은 서부로의 이동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만 형제의 기록에 따르면, 조지 에이 스미스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개척자와 정치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쾌활했다. 그의 파이우트족 인디언 이름은 ‘스스로를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무더운 날씨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 동안 그가 자신의 가발을 벗어 그것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몸 어디에서도 거드름 피우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일생동안 실천적인 삶을 보여준 조지 에이 스미스는 1875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배스쉬버는 35년간을 미망인으로 지냈다. 자신에게 기대어 마지막 숨을 거둔 그의 죽음은 배스쉬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에도 배스쉬버는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생활했다. 그녀는 테저렛 병원의 이사회에서 봉사했으며 성전들이 완성됨에 따라 성전과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일했다. 그녀는 1842년에 나무에서 조직된 첫 번째 상호부조회의 일원이었으며 지나 디 에이치 영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영 자매가 세상을 떠난 후, 스미스

사진 촬영: 존 엘리트 / CHURCH NEWS 제공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약혼녀인 배스쉬버 윌슨 비글러에게 영국에서 인쇄된 물문경 한 권을 건넸다.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1901년부터 1910년에 숨을 거둘 때까지 봉

사했다. ■

2007년 5월 5일자 Church News 에서 각색

## 관개 사업이 말레이시아의 15개 마을에 혜택을 주다

**사**라왁의 시문잔 교차점 지역 외곽에 있는 15개의 말레이시아 마을은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 중의 하나인 후기 성도 자선 단체(LDSC)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100여 명의 젊은이와 노인들은 LDSC

에서 제공한 보급품들을 이용하여, 댐을 확장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지름 8센티미터의 수로를 설치하는 일을 불과 몇 달 안에 모두 끝냈다.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라고 홍콩 소속 교회 대변인인 조지 맥은 말한다. 그는 아시아 전

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아 왔다. “그러나 댐이나 우물, 또는 다른 공급원이 마을에 설치될 때 ...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과거에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 양이 대개 한정되어 있었고 몇 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물을 길에서 나르기 위해 가족이나 일터를 떠나야 했고 어린이들은 한꺼번에 몇 시간씩 수업을 빼먹곤 했다.

교회가 지원하는 인도주의 사업들은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도와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의 완수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마을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도와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오직 하늘 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아십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말레이시아 연방 의회의 의원인 지미 도날드를 포함해 그 밖의 방문객들도 말 씀했다.

행사는 수로가이 시작되는 댐 근처에서 열렸다. 보통 이 지역은 등반하기에 매우 험악한 지형인데, 마을 주민들이 정글의 나무를 자르고 파내어 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한 계곡을 가로지르는, 손수 만든 몇 개의 대나무 다리 만드는 일도 들어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관료들은 밸브를 열어 물이 작은 물탱크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



마을 지도자들과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설치한 새로운 물 공급시설의 꼭지를 돌리고 있다.

## 2007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주님 봉사하셨네”를 참조한다.

1.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임을 설명한다. 복음 그림 패킷 218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준다. 그림 뒤에 있는 글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는지 설명한다. 누가복음 10장 30~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어린이들에게 따라 읽게 한다. 어린이들이 이야기에 친숙해지면 네 명의 어린이들에게 이것으로 연극을 해 보도록 부탁한다. (“연극”을 참고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72~173쪽) 어린이들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친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연기하는 동안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읽는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구절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을지 묻는다.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소책자를 보여준다. 8쪽, 9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아래에 나와 있는 제언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좀 더

예수님처럼 되라는 도전 과제를 준다.

저학년 어린이를 위해: 몸의 여러 부위들을 가리키며 어린이들에게 자신들 몸의 그 부위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예를 들어 발에 대해서는, “저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다른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라거나, 귀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어린이 노래책, 40~41쪽; 성도의 빛, 1990년 4월 호, 어린이안 54~55쪽)를 부른다. 어린이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한 문장씩 부르게 하고 “나” 부분을 부를 때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한다. 후렴구는 다 같이 부르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한다.

2. 앞부분에 “□217 수수께끼”라고 쓴, 큰 종이들로 만든 책을 전시한다. 첫 번째 장을 펴고 “□217이란 무엇인가? 힌트: 이것은 봉사에 관한 성구이다.”를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성구(모사이야서 2:17)를 살펴봄으로써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중 절반은 성경의 목차에서 □으로 시작하는 책을 찾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몰몬경의 목차를 펴고 똑같이 찾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으로 시작하는 책에서 2장 17절 부분을 살펴보게 한다.(예를 들어, 말라기 2:17) 어떤 책에는 2장

17절이라는 구절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들이 봉사와 관련된 한 특정한 성구를 찾고 있다는 힌트를 다시 한번 준다.

어린이들이 모사이야서 2장 17절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그들이 원할 경우 성구에 밑줄을 긋게 한다. 이 구절은 어떻게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지 말해 준다고 설명한다. 책의 다음 장에 있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를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책장을 넘기게 한다. 복음 그림 패킷 612(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와 611(감독), 607(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린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가정 안에서 돕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등학교 그림 패킷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추가한다.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어 자신의 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종이를 반으로 접게 하고 표지에 “□217 수수께끼”라고 쓴 다음, 표지 안쪽에 성구를 옮겨 쓰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다음주 동안 주님께 봉사할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밤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다. 한 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



##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11년 하고도 4개월, 그리고 3일.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또 몇 걸음을 더 디딘 그 시간 동안 김현분 자매는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요즘처럼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라면 강산이 서너 번은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실제로 김현분 자매가 처음 봉사했던 그때는 아직 백 원짜리 과자를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과자 가격이 다섯 배쯤 뛰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사회 전반의 변화는 그때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인 성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에 깃든 주님의 신성과 성전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하고 정갈한 느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듯 십년 전과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년의 세월을 보낸 김현분 자매는 올해 일흔다섯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하고 활기칩니다. 비결을 물으니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성전에 있으니 그렇지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김현분 자매는 남편인 안희운 형제와 함께 1987년 3월 3일부터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형제의 성화 때문이었다고 김현분 자매는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큰 열의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위해 생계 수단도 팽개친 채 무작정 선교 사업을 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며 김 자매는 미소를 짓습니다. 축복사로 봉사하기도 했던 안희운 형제는 김 자매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친구였으며, 신권 지도자였고, 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5년 6개월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1998년 4월 29일, 안희운 형제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현분 자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세월을 함께한 영원한 동반자가 떠난 상실감 때문에 김 자매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교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남편과 했던 약속, 최대한 오래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자라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 남편인 안 형제와 함께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슬픔은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화평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며 수많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 자매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큰 병 한 번 없었던 것도 기적이요 축복이며, 자녀들과 손자들이 건강한 것도 다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안 형제의 따뜻한 위로를 언제나 곁에서 느끼는 것도 기적입니다. 김현분 자매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김 자매는 “주님의 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 김

자매에게 최근 생긴 고민은 한국에서 성전 선교사로 나오는 회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전부 미국에서 나온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김 자매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한국 실정상 부부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자매는 한 명이라도 더 성전에서 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총 여섯 번을 봉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성전 선교사로 일한 김현분 자매의 마음은 아직도 성전에 있습니다. 잠시 성전을 떠나 어딘가에 다녀올 때마다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가슴이 뛰며 발걸음을 서둘렀던 김현분 자매의 11년 4개월 3일. 김 자매는 이제 성전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성전 선교사로 나오기를 독려하는 간절함으로, 아직도 남편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애뜻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 “청소년 대회에서 간증을 수확하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에서 여름 태양만큼이나 강렬한 간증을 한아름 가지고 왔다. 그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 김소영 자매 (울산 지방부)

몇 주 전, 지부 회장님께 이번 청소년 대회 일정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울산 지방부로 바뀌면서 새로 만난 청소년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로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하이킹’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이킹은 두 개 조가 한 팀이 되어 초기 개척자들이 시온을 찾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산길을 지나 목적지에 찾아가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중간 중간 길을 잃고, 무전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 무섭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이킹을 통해 신권을 가진 형제를 지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먼저 자신 스스로가 봉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제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 김지혜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를 위해서 청소년들과 고문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대회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에 바쁜 고문들이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 회장단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고문들이 저희를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 체험, 체육 대회, 물놀이, 쇠막대, 산행, 그리고 무도회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보살펴주시는 고문들에게 감사했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계획하고, 진행했던 청소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간증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선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제 성구였던 교리와 성약 122편 7절의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줄 알라.”는 말씀처럼 청소년들은 모두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 박재훈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 대회를 참여하면서 저에게 가장 부족하였던 부분인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 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조장을 맡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조장을 하다 보니 조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리더를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또 청년들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부족했던 리더십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스테이크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교회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훗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신현진 자매 (순천 지방부)

아빠께서 이번 청소년 대회가 도보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제 몸도 무거운데 잘 걸을 수 있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청소년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대회 첫째 날은 16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저희 대대에서 제 배낭이 가장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걸었을 때 점점 뒤통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5시간쯤 걸었을 때 저는 다른 대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통졌습니다. 그때 저보다 동생인 이수빈 자매가 다가와서 “언니 곧 있으면 도착이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며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야영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 대대원들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가벼운 짐조차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허벅지가 헐고 날씨가 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걸어서 뒤통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 저에게 혼자서 이 거리를 걸으라고 한다면 저는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번 도보 여행 때 보여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가 힘들었던 것만큼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회 내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푹푹 뭉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 이수휘 자매 (청주 스테이크)

이번 청소년 대회를 참석하기 전에 고3 여름 방학 동안이라 담임선생님이 많이 반대하셨지만, 저는 제가 당연하게 청소년 대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뿌듯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백산 등반이었습니다. 소백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아름답고, 푸르고 넓은 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 했던 세미나는 저희들끼리 경험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모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지금의 부모님들처럼 자녀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 하도록 권유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대회는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앞으로 남은 마지막 동계 청소년 대회가 기대되고 그곳에서도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예정 자매, 최선 자매, 최한나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7미터짜리 실물 망루를 만들고 있는 울산 지방부 청소년들

\* 같은 와드 소속인 이 청녀들은 모두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이예정 자매** 저는 중1때부터 하계 청소년 대회, 동계 청소년 대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올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수시 시험 일정이라든지, 학원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청소년 대회는 안식일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도 공부보다 청소년 대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3이든 중학생이든 청소년 대회는 모든 청소년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도 청소년 대회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학원 수업, 학교 보충 수업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대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자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학교 보충 수업을 빠져야 해서 청소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청소년 대회에 참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을 맡게 되어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에 대대원들과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학년 때부터 청소년 대회에 참가해왔지만 이번이 가장 특별했고 기억에 남는 청소년 대회였습니다.

**최한나 자매** 7월 28일 토플 시험 날짜가 청소년 대회와 겹쳤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을 포기하면 시험 칠 기회를 잡기 힘든 한국 사정상 언제 다시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시험을 취소하고 일단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번 시험 기회를 얻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화요일마다 열리던 토플 시험 접수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금요일에 갑자기 열렸고, 저는 무사히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방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전도서 11:9)

여름이 돌아왔다. 더불어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젊은 열기와 신앙이 가득한 청년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희생한다. 올해는 전국 다섯 개 종교 교육원 별로 청년 대회가 진행됐다. 여러 스테이크가 모이는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다. 하지만 이 여름, 청년 대회에서 걸어 올린 시원한 간증 한 모금씩을 전하고자 한다.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은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한 뒤에 간증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다.

## 손홍욱 형제 (서울 동 종교 교육원)



23년 동안 홀로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 회원들이 부러웠던 저에게 청년 대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회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주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대회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전국 청년 대회를 포함해서 대회에 열두 번 참석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간증과 복음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면서 지도자님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준비된 모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것은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데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면 저에게는 이번 청년 대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은 매년 8월이면 제 가슴속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소중한 경험과 간증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제 자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상으로 와야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 안의룡 형제 (부산 종교 교육원)

이번 청년 대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대회였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 하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산행과 무도회였습니다. 힘든 산행을 하면서 지친 자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형제님들이 계셨으며 처음 청년 대회에 온 형제를 위해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서 춤을 가르쳐주고 배려해 주는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자신을 잊고 다른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 주제 성구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청년 대회를 보내면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승영의 고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선교 사업-성전 결혼-승영’이라는 단계가 바로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헌신할 때 더 가까이 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섰듯이 우리 모두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승영에 이를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 이창엽 형제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저에게 이번 서울 서 지역 합동 청년 대회는 선교 사업과 군복무로 인해 4년 만에 참석했던 대회이기에 더욱 뜻 깊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라는 최우환 장로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대회의 목적대로 서로가 한 가족임을 느끼고 형제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복무 기간 동안 후기 성도 청년들과 오랫동안 이러한 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참된 복음 안에서 같은 신념과 신앙과 정서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후기 성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랑과 간증을 나누었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은 수없이 많지만, 저는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청년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에게서 덕을 찾고 강조할 수 있었던 시간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만큼 이 복음 안에 속한 저의 훌륭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서로의 모범을 통해 많이 배우고 발전하며, 영적으로 고무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윤희 자매 (중부 종교 교육원)



이번 중부 종교 교육원 청년 대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청년 대회와 다르게 스스로 찾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대원들과 단합해야만 했던 대회였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활동은 하루에 몇 대 밖에 없는 버스를 잡아타고, 부여 시내 백제 유적지로 나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경전과 대대원의 아이디어를 뭉쳐 역사적 지식과 함께 주어진 임무를 풀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점심마저도 아침마다 미리 지급되는 당일 예산 안에서 지정장소에 가기 전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활동은 고난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였고, 대대원들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다음 관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합을 배우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해져 갔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제 신앙의 나무엔 물이 차고, 거름이 더해졌습니다. 부여의 사랑, 공남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던 셋째 날, 연꽃을 보았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은 더러움은커녕, 깨끗하다 못해 순결한 빛을 자아내며 자태를 뽐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연꽃들을 주섬주섬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언뜻 길다고 느꼈지만 어느새 돌아갈 날이 왔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낀 청년 대회였습니다.

#### 최승훈 형제 (광주 종교 교육원)



이번 청년 대회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때문에 타지로 떠나있었던 여동생과 선교 사업 및 군 생활로 4년간 집을 비웠던 제가 함께 모여 삼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청년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잊고 있던 형제간의 사랑을 다시 느꼈고,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을 청년 대회를 통해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 대회 동안, 주제 성구인 모세서 7장 18절의 시온 백성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생활하기 위해 조나 대대라는 명칭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이전의 조장과 부조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지게 될 것인지, 부모와 자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겁게 뭉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불평하고, 짜증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를 때 스스로 양보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 저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 서로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대회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실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며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삼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이런 간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참되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대회와 같은 훌륭한 모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청년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는 모임인데, 오시겠다는 신앙을 행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낮익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고원용 장로의 눈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과 함께 차올랐다. 필리핀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고원용 장로의 환송 노변의 모임이



7월 22일 저녁 여섯 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예배당에서 열렸다.

고원용 장로와 아내 김은희 자매, 딸 고혜원 자매가 연사로 섰던 이날 모임에는 그 동안 주님의 사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함께 손발을 맞추었던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가족 모임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임의 시작을 장식한 온누리 합창단의 정갈한 노래가 한여름 안식일 저녁을 더욱 오붓하게 만들었다.

고혜원 자매가 풀어 놓은 이야기 보따리에는 때로는 엄하지만 익살스러운 어머니 김은희 자매와 인자하고 온유하게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 고원용 장로가 있었다. 집안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고 자매의 말씀 마지막은 부모님이 보여준 모범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다. 뒤이어 연단에 선 김은희 자매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남편과 함께하며 만난 회원들의 모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스무 살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이 멋있



어서 “스테이크 회장님 같은 신권 형제님과 결혼하게 해 주세요.”라고 꿈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김은희 자매는 결혼 후 1년 뒤에 남편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간증이 더 커졌다고 한다. 그 후 고원용 장로는 부름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미안함을 “교회 부름 받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라는 농

담으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8월 1일은 한국 성도들에게 해방의 날입니다!(고원용 장로는 8월 1일부터 필리핀 지역 회장단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유쾌하게 던진 고 장로의 농담에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 뒤에는 그간 고 장로와 한국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임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며 고원용 장로는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고원용 장로의 간증과 권고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다.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친구의 집에 놀러가고 대화하듯 성전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며 고 장로는 주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교회 안팎에서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참고, 인내하고 돌아설 때 우리의 돌아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관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눈물과 웃음소리가 함께했던 노변의 모임은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모두 다 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는지 모임을 마친 후 연단 주변에는 고 장로 내외에게 인사를 전하려는 회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 새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는 고원용 장로와 김은희 자매, 그리고 회원들 사이에 격려와 인사가 오갔으며, 꼭 잡은 두 손은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 주었다. ■ <황미주 기자>



# 선교 사업의 영을 전한 에번즈 회장



2007년 8월 5일,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의 감리로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대전 선교부 산하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들이 모였다. 대전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된 노변의 모임은 대전 선교부 지역의 회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말씀들로 채워졌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페리튼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발전시키며 축복해 주신다.”고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뒤이어 페리튼 대전 선교부 회장은 자신이 대전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봉사한 것과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물론경은 또 하나의 성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쓸 것”이라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말을 남겼다. 에번즈 회장과 함께 대전을 방문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로 대전 선교부 지역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전해 준 간증을

언급하면서 “자녀의 선교 사업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에번즈 회장은 “여기 방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라는 감회어린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페리튼 회장이 40년 전에 대전 지역에서 봉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40년이 지나고 난 뒤 페리튼 회장이 다시 돌아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일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35년이 지난 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으면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에번즈 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중 좋은 일은 모두 선교 사업을 다녀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선교 사업을 원하십니다. 선교 사업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가야 합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하는 확신에 찬 간증에 참석한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번즈 회장은 말씀을 마치며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제는 선교사에게만 맡길 시기가 아닙니다. 함께 일할 때입니다. 회원으로서 선교사를 도우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번즈 회장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 선교 사업이라는 네 글자가 대전 선교부 지역 회원들의 마음을 울린 시간이었다. ■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http://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노변의 모임** 2007년 7월 29일 안식일, 마산 와드에서 현한양 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서울 남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주덕영 형제를 초청하여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주덕영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주었다.

###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 취옹 예술관에서 청소년 66명과 고문 28명 등 총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첫날 청소년들이 준비한 문화의 밤을 비롯해 등산, 베이스활동, 캠프파이어 등 다양

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체험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간증을 나눔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키울 수 있었다.



**초등회 일일 캠프** 2007년 8월 10일 과천의 청계산 산림욕장에서 스테이크 내의 용기반 어린이 55명과 역원 및 고문 20명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해설가 다섯 명의 안내로 다양한 숲 체험과 어린이들이 직접 손수건에 나뭇잎 천연 염색하기, 나무로 액자 만들기 등을 하였다.



**전주 스테이크 <이어나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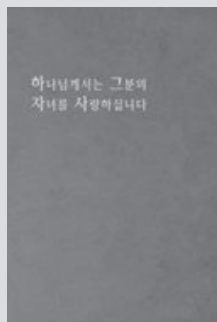
**합동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와 순천 합동으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장소는 전북 무주 구천동 일대로 특별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짐을 직접 메고, 첫날은 16킬로미터를, 둘째 날은 6킬로미터를 걷는 것이 이



번 청소년 대회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대회는 자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대대별로 모임을 구성하고 준비물을 분담하여 챙기고 음식부터 잠자리를 마련하는 일까지 스스로 행해야 했다. ■

**새로 나온 교회 책자**

새로운 교회 책자 두 권이 출판됐다. 동성에 문제로 고민하는 회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와 **청녀 야영: 신권 및 청녀 역원 지도서**가 그것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는 동성애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회원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간단한 진리속에 동성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청녀 야영: 신권 및 청녀 역원 지도서**는 기존에 있던 청녀 야영 지도서에 대한 영적 보충 자료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녀 야영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수영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유타 프로보 선교부



**이한웅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문진영(전임: 김영식)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감독: 이준우(전임: 이기영)

**부산 스테이크**  
과정 지부 지부 회장: 안종원(전임: 김만수)  
대신 지부 지부 회장: 정무정(전임: 김봉술)